양승헌 목사! 한국 교회에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누구인지 다 알 만큼 유명한 어린이 사역자인 그가 2001년 10월, 49세라는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13년간 사역했고, 우리나라 교육 사역에 큰 축을 담당하는 파이디온선교회 대표로, 또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로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던 중이었기에 그의 개척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 갑니다

양승헌 목사는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M. Div.)를 졸업했고, 미 달라드신학교(Th. M.), 미 트리니티신학교(Ed. D.),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GMF(한국해외선교회) 이사, 파이디온선교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제자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세대로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다.

2001년 세대로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양 목사는 젊은 시절 자신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파이디온선교회 대표 자리와 합동신학대학원 교수직을 내려놓고 버젓한 건물 하나 없는 지하실에서 한 개척 교회 목사로 헌신하고 있다. 무엇이 그가 평생토록 이루어 놓았던 왕성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지하실 한 귀퉁이에서 몇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였을까? 교육학 박사도, 신학교 교수의 위치도 아닌 제자훈련을 통해 한 사람을 세워 가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한 사람의 목회자로 변신한 양승헌 목사와 세대로교회를 만나보았다.

세대로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양 목사가 세대로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강의를 통해 왕성한 사역을 하였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는 강의와 설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한계 | 주일학교 교육만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20대 초반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양 목사는 어린이 사역자로 소문이 났었다. 그러나 늘 양 목사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의문은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집에서 늘 보는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세상적일 때 아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손바닥 양면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교육의 1번지인 부모님의 교육과 2번지인 교회 교육이 합쳐질 때 비로소 건강한 세대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어린이 사역을 잘 한다 해도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양 목사는 가정의 변화를 위해 '부모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부모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한계 | 강의만으로 부모가 변화되지 않는다.

부모를 교육시키는 것이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열쇠임을 깨달은 양 목사는 '부모학교'를 개설해서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고,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강의는 은혜로웠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강의대로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저는 그때 열심히 강의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만 전달해 주었지, 정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수도 없었고, 또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일방적인 의사전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강의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달은 양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의 전인격을 터치할 때 사람이 변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강한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어린이 사역의 눈을 넓혀라

"저는 남서울교회가 장년출석 100명일 때 사역을 시작해서 3,000명이 될 때까

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13년이라는 기간을 사역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믿음 좋은 청년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그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으로 잘 자란 아이들의 공통점은 제가 주일학교를 지도할 때 저에게 영향을 받았던 아이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건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양 목사는 건강한 부모들을 세우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들을 세울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 하면 신학교 때 잠깐 하다가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장년 사역으로 가는 디딤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께 하는 사역(ministry with children)도 어린이 사역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사역(ministry for children)도 어린이 사역입니다. 오늘을 사는 장년 세대를 사역함으로 결국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으로 어린이 사역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합니다."

양 목사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듯 그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과 고민의 결과였다. 새로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가지게 된 양 목사는 그가 꿈꿔 왔던 대로 교육 공동체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켜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의미에서 교회 이름을 세대로교회(Generations Community Church)라고 정하게 됐다.

교육 교회 공동체를 위한 터다지기

세대로교회를 개척한 양 목사는 목회와 교육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육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견본주택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모델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하우스, 즉 견본주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로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육 교회 공동체'라고 목표를 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세대로교회가 처음부터 승승장구 했던 것은 아니다. 양 목사와 세대로교회는 다른 개척 교회와 마찬가지로 개척 교회가 가지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교육 교회 공동체'라는 큰 비전과 양승헌 목사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개척을 한 것이기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개척을 쉽게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 목사는 초등학교 교사 5명과 함께 건물도 없이 파이디온선교회 교육관에서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는 것으로 교회를 시작하였다.

'부모학교'에서 은혜를 받은 유치원 원장님의 도움으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릴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아파트 부녀회의 반대로 쫓겨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시 옮긴 영동여고 강당에서는 1년이 지나지 못해 재건축령이 내려지면서 또 다시 교회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등 지금의 삼전동 1번지로 오기까지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양 목사와 세대로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고, 현재 주일 예배는 인근에 있는 배명고등학교 강당에서 300여 명의 장년들과 150여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출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다.

개척 초기부터 교육 교회 공동체를 꿈꾸었던 양 목사는 그동안 쌓아왔던 성경적인 이론과 강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인들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2년을 지속적으로 양육한 결과 훈련을 받을수 있는 기초체력이 다져졌고, 양 목사는 이제는 교회 내에 제자훈련을 시작해야 할때라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다.

제자훈련을 만나기까지

양 목사는 제자훈련이 장년교육에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이미 개척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30년 전 이미 어린이 디모데훈련이라는 제자훈련을 시작하여 전국 주일학교에 확산시켰고, 그 조그만 책이 출발이 되어 오늘날 도서출판 디모데로 자라게 되었을 정도로 이미 소그룹을 통한 제자훈련은 그의 사역의 원리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장년 목회와 교육에 많은 경험이 없었던 양 목사에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제자훈련을 통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유학 중, 학교에서 제공한 제자훈련을 설레는 기대감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경험한 제자훈련은 그에게 제자훈련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가져다주었다. 한국에서 이미 제자훈련에 매료되었던 양 목사에게 유학 중 경험했던 제자훈련에 대한 실망과 회의는 제자훈련을 그의 새로운 실험목회에 접목할 용기에 발목을 잡고 말았다.

제자훈련에 대한 회의감

회의감 1 | 제자훈련의 초점이 '훈련 과정'에 있는가?

달라스에서 유학을 할 당시 양 목사는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자훈련 인도자에게 직접 제자훈련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매주 제자훈련이 진행되면서 양 목사의 마음속엔 "이것은 아닌데…" 하는 무거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학교의 정규 커리큘럼 중 한 과목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그 중심에 있지 않은 제자훈련이 가장 큰 시험거리였다.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유격 훈련 교관 같은 지도자의 비인격적 태도,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는 내용 훑기식 기계적인 학과 진행 등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양 목사의 철학과 맞지 않았던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사람은 제쳐두고 내용에만 매달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재에 답을 쓰는 것이 제자훈련은 아닌데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훈련하는 동안 전혀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과정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꽃피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이기에 훈련을 받을수록 더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되었다.

회의감 2 | 제자훈련이 사람들을 길들이는 것인가?

제자훈련의 근본적인 철학은 골로새서 1장 28~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사람'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양 목사가 유학 중 경험한 제자훈련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제자훈련의 철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오직 제자훈련이라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품을 찍어 내는 것 같은 틀에 박힌 훈련이었다. 양 목사에게 늘 이런 방식의 훈련은 '사람 길들이기'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선교단체는 동질적인 집단입니다. 학력 수준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질적 집단이에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양승헌 목사는 파이디온선교회 대표 자리와
합동신학대학원 교수직을 내려놓고
버젓한 건물 하나 없는 지하실에서 한
개척 교회 목사로 헌신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건강한 부모들을 세우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들을 세울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교육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켜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한다.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는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와 특성, 수준을 배려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제자훈련을 그 필요와 수준이 천차만별 각양각색인 교회에 접목할 수 있을까 늘 회의가 생겼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고, 아직 기다려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들기를 원하는 틀 속에 무조건 들어오라는 식의 훈련은 제자훈련이 아니라 사람을 길들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감 3 | 소그룹 다이내믹 없이 제자훈련이 가능한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양 목사가 품었던 또 하나의 의문은 "왜 리더와 수직적인 관계 중심으로 제자훈련이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미 어린이 제자훈련을 통해 소그룹의 다이내믹을 경험했고, 또 당시 교육학을 전공하던 양 목사는 사람이 변화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서로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양 목사가 받은 제자훈련은 리더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가르침이 그 훈련의 구성요소였다.

"그때 함께 훈련받은 훈련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간의 영적인 소통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거나, 기도해 주거나, 삶을 공개하거나, 관계를 맺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리더에게만 매달려서 배우는 학원 강습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 중 자신의 삶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끼친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함께 훈련을 받는 영적 동지들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렇듯 제자훈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화의 요소는 훈련생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다.

"제가 그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학점을 받는 조건으로 과제를 해야 했는데, 그것은 한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지식한 저는 한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 여섯 분을 모시고, 2년간 충성스럽게 제자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년 제자훈련을 경험한 적이 없던 저는 그 강사님께 배운 대로 충실하게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내게 배우는 사람들의 지식과 신앙의 틀이 확고해지는 변화는 볼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나 저 자신에게나 끈적거리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 인격 중심에서의 변화는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쁨은 있었지만, 제 심령 속에 사람의 변화를 목격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가 과정 중심, 내용 중심, 교관 중심의 제자훈련을 받고, 그것을 시키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하는 회의감은 분명해졌지만,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딱히 찾지 못한 채 유학을 마치게 되었다.

CAL세미나를 통한 재도전

"저는 옥한흠 목사님이 강남 은평교회를 개척하셨을 때부터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제자훈련에 대한 옥 목사님의 복음적 열정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대로교회의 양육체계를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는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중, 저는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옥한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볼 때 한국 성도들의 약점과 기질을 누구보다 더 고민하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옥 목사님의 검증된 사역을 장년교육의 근간으로 채택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CAL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육과 목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영향력을 가진 양승헌 목사가 CAL세미나에 와서 다시 제자훈련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 목사는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았다고 한다.

"CAL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제 마음을 뛰게 했던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은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를 도와 충성할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제자훈련의 결과로 꽃피는 것이지 결코 제자훈련의 본질은 아닙니다. 옥 목사님의 강의는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육적 이론과 원리들을 알고 있었던 양 목사는 CAL세미나를 통해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이 결국 한 사람을 향해 목숨을 거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교육 교회 모델 건축에 이 제자훈련을 접목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깨달은 은혜

양 목사는 63기 CAL세미나를 2004년 11월에 수료를 하고, 3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위한 비전 나눔을 시작하였다. 설교를 통해, 교육을 통해 성도들에게 교육 교회로서의 양육 시스템은 제자훈련을 근간으로 세워갈 것을 설득하였고, 앞으로 세대로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수료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람이 자라는 철길은 제자훈련입니다."

양 목사의 선포는 목회자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교육목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세대로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골격과 체질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훈련은 교회적으로도 큰 축복이 되고 있지만, 가장 큰 은혜를 얻는 사람은 바로 목회자인 자신이라고 양 목사는 말한다.

은혜 1 |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제자훈련을 하면서 '아~ 내가 이제야 목회자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사와 교수 멘탈리티였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과 자극을 주고받으며, 저는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런 일인가 감동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내가 이들을 세우다가 죽어도 결코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 목사는 수백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느낄 수 없었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워 가고 있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겠다는 목사와 함께 훈련을 받을 때 그 평신도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리고 그런 평신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목회자는 또 얼마나 행복할까?

은혜 2 | 목회에 진정한 활력과 보람

양 목사는 실제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며 느낀 보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저는 제자훈련을 할 때 한 훈련생을 한 명의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수천 명의 족장이 되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수천 명의 후손들과 건강한 가문, 경건한 민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교역자 회의, 학교 강의로 온몸이 지친 채 제자훈련에 들어갈 때가 많지만, 훈련을

달라스 유학시절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기계식 제자훈련에
실망한 양 목사는 귀국후 CAL세미나에 참가해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이 결국 한 사람을 향해
목숨을 거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교육 교회 모델 건축에
이 제자훈련을 접목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마치고 나올 때는 예외 없이 기쁨과 활력이 충만해져서 나오는 저를 봅니다."

이어 그는 "제자훈련은 저에게는 목회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원천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제자훈련만 하고 나면 새로운 힘이 솟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양 목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신학대학원 교수직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파이디온선교회의 대표직도 이미 다른 후배 목사에게 물려주었다. 이것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은혜 3 | **훈련을 통해 함께 세움 받는 기쁨**

"훈련생들에게 기도하라는 숙제를 내주고,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그것이 저를 더 충만케 하고, 성장하게 해줍니다."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과 속에서도 훈련생들과 동일하게 몸부림치는 목회자가 된다면 제자훈련은 그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줄 것이다.

제자훈련을 반복적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제자훈련 인도자는 훈련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이지만 함께 훈련받는 훈련생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게 될 것이다.

2기 제자훈련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박현숙 집사는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훈련시간마다 돌려 기도했던 기도제목 종이 뭉치를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일이고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목사님의 뭉치를 들어 보이며 1년 동안 그 종이에 적힌 기도제목 중에 이루어진 기도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겼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양 목사는 세대로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목회자인 자신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의 비전성취

세대로교회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 교육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교회 비전이다. 교회를 개척할 때 시작된 비전이지만, 그 비전은 제자훈련을 통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세대로교회의 제자훈련에서 양 목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바로 귀납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D형 큐티'이다. 하나님의 세대를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양 목사는 훈련생들에게 철저하게 D형 큐티 방법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매주 1시간 정도를 D형 큐티를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대로교회의 D형 큐티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큐티 본문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인 '중심사상'(main idea)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바로 성경 본문이 말하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훈련입니다. 그것을 관찰에서 찾지 못하면 성경 본문과는 상관없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엉뚱한(?)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말씀을 만들어 붙이는 이상한 양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D형 큐티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한 이영열 집사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더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설교 요약 숙제 때문에 요약을 하면서는 설교 패턴이 들어오고, 그 패턴을 이해하면서는 설교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

"매주 과제물을 점검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D형 큐티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메인아이디어를 찾았을 때, 목사님께서 '렌즈를 정확히 깼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올림픽 양궁선수들이 과녁의 정 가운데를 맞출 때 카메라 렌즈가 깨지는 것같이 정확하게 맞추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린 학생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는 |

교육은 잡는 것이 아니라 잡히는 것이다.

양승헌 목사는 어린이 사역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서 세대로교회의 주일학교는 어떻게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는지 많은 관심의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세대로교회에서 어린이 제자훈련이라고 이름 붙은 프로그램은 아직 시작되지 않지만, 교회에서 커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두 가지 제자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간접적인 것으로서 제자훈련을 받은 멘토들(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세대로교회의 명칭)이 각 예수마당(주일학교에 대한 세대로교회의 명칭)의 사역 속에 바른 영향력을 끼침으로 오는 간접적 제자훈련이다. 둘째는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제자훈련으로,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세대로교회 어와나 사역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된다. 부모님을 따라 함께 수요일 날 교회에 와서 장년들은 수요예배로, 또 자녀들은 어와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어와나에서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은 공정한 룰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 규칙들을 알아가면서 정직하게 임하려고 합니다. 또 성경암송을 하면 별을 달아 주는데, 그것을 모으는 재미로 어린아이들이 성경암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와나는 게임 형식을 빌려 책임감, 인내, 정직, 권위에 복종 등 예수님의 어린 제자로서 꼭 배워야 할 원리를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 목사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임을 강조한다.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어떤 프로그램이냐 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마친 성숙한 교사들이 그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을 통해 준비된 교사들이 그 공동체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 공동체'를 이룬다 |

교육환경과 시스템을 건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 교육 환경의 중요성

세대로교회는 제자훈련을 실시한 지 이제 막 3년이 되었

세대로교회는 현재 말씀을 통해
교회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 비전이며,
이 비전은 제자훈련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대로교회는
제자훈련을 기반으로 한 교회 양육 환경과
시스템을 개발했다.

다. 이제 막 3년이 된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세대로교회는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 너무나 할 말이 많은 교회이다.

그중의 한 가지가 바로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 양육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저는 티칭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 티칭 스타일 같은 것을 강의하면서 늘 좋은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제가 가르치고 원했던 결과들을 지금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그것이 제자훈련을 만나면서 이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고 있습니다."

양 목사는 강의 사역을 하면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늘 궁금했었다. 그런데 제자훈련이라는 소그룹을 통해 교육가로서의 확신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강의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였지만 그 가르침은 도전과 은혜로 끝이 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리더들이 다시 현장에서 소그룹을 인도할 때는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는지 늘 불안하고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세대로교회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명강사의 강의보다 진실한 목회자의 소그룹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전도의 공식은 목회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진리이다. 그리고 소그룹이라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각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의 철학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

세대로교회의 연혁의 첫 시작은 2001년 10월 3일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기도회를 가진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2002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비롯해서 2004년 12월 지금의 예배당에서 드린 입당예배까지 교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 교회 연혁 속에 **'2005년 2월 1기 제자훈련이 시작되다'**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양 목사와 세대로교회가 제자훈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증명해 보이는 대목일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제자훈련을 시작한 뒤 세대로교회 연혁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필수 양육 시스템(101-201-301-401)이 확정된 것이다.

세대로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001 생명반을 시작으로, 세대로교회의 교인이 되기까지 교회의 비전과 목표와 철학을 배우는 101 회원 교인 과정, 그리고 교회 교사와 서리집사가 되는 201 과정인 성장반, 그리고 그 후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는 301, 401 과정으로 두고 있다.

세대로교회의 시스템을 한눈에 보면 새들백교회와 비슷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양육 커리큘럼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대로교회 양육 시스템은 새들백교회와도 다르고,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다른 교회들과도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자·사역훈련이 교회 양육의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다. 세대로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면 세대로 301, 401 과정인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이것은 세대로교회가 제자훈련을 목회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 소그룹의 리더가 될 사람들을 소그룹을 통해서 세워 간다는 것이다. 세대로교회도 과거에 경험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을 강의를 통해 교육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장차 소그룹의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 강의를 통해 교육을 하게 되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빠르지만 인도해야 할 소그룹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소그룹 다이내믹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들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강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을 통해서 배출될 때 더 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교회(Church with small Group)와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Church of small grou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그룹을 양성하는 리더들이 배출되는 교육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세대로교회는 제자훈련 이전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소그룹이라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그룹 리더들을 양성하는 과정까지 모두 소그룹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셋째, 충분한 시간을 통해 리더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세대로교회의 다이아몬드 시스템은 전 과정을 다 마치기까지 최소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새들백교회의 101~401 과정이 16시간으로 끝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전체 과정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 양성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양 목사의 교육학적 철학 때문이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헨리 클라우드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첫째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셋째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것 중의 하나는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이 되어야 추수를 하듯이 하나님의 성장의 법칙에 '급조'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다. 농작물이 자라는 데도 시간과 수분과 양분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자라는 데도 충분한 시간과 양분이 공급되어야 한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3년째인 올해 세대로교회는 처음으로 사역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사역의 일선으로 들어서게 된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장주창 목사는 2년이란 과정을 인내한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세대로교회는 훈련된 일꾼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사역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이 각 사역에 포진됩니다. 앞으로 세대로교회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건강하고 멋진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한 미래의 비전

양 목사는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두 개의 비전이 있다. 첫째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건실한 믿음의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 부모들을 변화시켜 가정을 회복하고, 회복된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양 목사의 비전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양 목사에겐 아직 이루지 못한

모임	기간	내 용
001 생명반	4+1주	기독교 신앙의 입문 과정, 복음의 핵심, 기초 양육, 세례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
101 회원교인	3+1주	세대로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 회원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
201 성장반	8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멘토, 서리집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301 제자훈련	32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고급 과정 예수마을 목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401 사역훈련	32주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가 되기 위한 고급 과정

또 한 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이블랜드'에 대한 꿈이다.

"바이블랜드는 읽거나 듣는 성경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성경 내용에 참여해 배우는 체험 성서 학습장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경적 세계관의 밑그림을 그려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즉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을 합친 성서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목사는 현재 '바이블랜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동참한 사람들과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도를 하며, '바이블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교회에서 신앙의 참 기쁨을 맛보았다는 한 집사는 "양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를 통해서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제게 세상의 성공을 크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성공과 재능을 바이블랜드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은퇴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이블랜드'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교 현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고, 아이들은 함께 성경을 체험적으로 학습할 그런 날들을 꿈꾸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양 목사는 어린이 사역자로서 마지막 사역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바이블랜드를 만드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그 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믿으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양 목사와 세대로교회를 보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사야의 비전처럼 양 목사가 집중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헌신이 바이블랜드라는 현실로 드러날것을 확신하였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이제 세대로교회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기성세대를 훈련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 가는 양 목사의 목회철학을 통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성도들 모두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척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에 양 목사는 "저희 교회는 이제 옥한흠 목사님이 세우신 제자훈련이라는 큰 건물에서 한 평 정도 분양을 받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한 교회여서 특별히 제가 당부하기보다 제가 더 열심히 배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것은 한 영혼을 섬길 때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느려서 이렇게 해서 목회가 될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힘의 70%를 몇 사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심방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눈에 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 그것은 정말 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세대로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막 5년이 된 교회이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교회이다. 아직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변변한 건물 하나 없이 상가 지하실을 빌려서 모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초공사를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를 미리 알 수 있듯이, 제자훈련의 기초공사를 놓아 가는 세대로교회의 제자훈련과 목회를 통해 앞으로 10년, 20년 뒤 한국 교회에 건실한 견본주택으로 자랑스럽게 세워질 날을 기대해 본다.

〈고상섭 전도사〉

양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것은
한 영혼을 섬길 때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느려서 이렇게 해서
목회가 될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으나
70%를 몇 사람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심방도 하고 설교도 한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
그것은 정말 더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이다.